

“야구 인생에 남은 시즌... 멀리 보며 뛰겠다”



지난 5월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 연장 11회말 1사 만루에서 KIA 최원준이 끝내기 만루홈런을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고졸 2년차 최원준 홈 최종전 소감
타격 실력에 개막 엔트리 합류... 설익은 수비는 한숨
“끝내기 만루홈런 기억에 남아... 좋은 선수 되고 싶어”



KIA 타이거즈의 '미래' 최원준이 아쉬움으로 2017 시즌 안방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KIA는 26일 LG 트윈스를 상대로 정규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치렀다. 안방에서 예정됐던 72경기를 모두 소화한 KIA에 남은 경기는 5. KIA는 오는 28·29일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와 경기를 치른 뒤 수원으로 이동해 kt 위즈와 10월 1일부터 시즌 마지막 3연전을 갖는다.
2017시즌 종착점을 앞에 두고 안방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낸 고졸 2년 차 '차내' 최원준은 “생각보다 정말 시즌이 빨리 지나갔다”며 올 시즌을 돌아봤다.
최원준은 프로에서의 두 번째 시즌은 1군에서 스타트를 끊었다. 빠른 발과 신인답지 않은 타격 실력으로 개막 엔트리 한 자리를 꿰차지만 아쉽게도 도루 도중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4월 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그리고 재활 과정 등을 거친 뒤 5월 20일 다시 1군에 콜업됐다. 이후 최원준은 쟁쟁한 선배들 속에서 실수도 하고, 깜짝 활약도 하면서 가을까지 달려왔다.
욕심만 앞서서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

가 된 주루사를 기록하기도 했고, 설익은 수비에 실수 연발을 하면서 고개를 숙인 날도 있었다. 하지만 어린 선수가 맹수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2017시즌이었다.
최원준은 “올 시즌이 앞으로 야구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매일매일 게임을 하는 데 멀리 못보고 마음이 급하게 보냈던 게 가장 아쉽다. 그날 좋지 못했어도 다음 경기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했는데 너무 깊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표정도 더 밝게 하고 멀리 보면서 차분하게 한 시즌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경이로운 100만 관중 기록을 세운 올 시즌, 최원준은 팬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보낸 안방에서의 시간이 감사하다. 야구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짜릿한 순간도 안방에서 장식했다.
최원준은 “올 시즌 홈에서 좋은 기억이 많이 있다. 아무래도 끝내기 만루홈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웃었다.
최원준은 지난 5월 28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3번의 만루 기회를 무산시킨 뒤 맞은 11회 4번째 만루 찬스에서 담장을 넘기며 극적인 끝내기 경기의 주인공이 됐다.
최원준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한 시즌이었다. 경기에 많이 나가다 보니 경험도 생기고 이제 긴장하기 않게 됐다.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

예비역 안치홍 “첫해가 힘들다더니” “우리 선수들 표정은 안 죽으니까”

덕아웃 T 특특

▲첫해가 힘들다더니 = 신인 같은 마음으로 보낸 예비역의 복귀 시즌이었다. 안치홍은 26일 홈 최종전을 앞둔 소감에 “선배들이 전역 후 첫해가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다(웃음). 여름에는 정신을 못 차렸다. 체력적으로 준비 잘했다고 했는데도 부족했다. 아쉽다”고 말했다. 그래도 홈팬들 앞에서 많은 박수를 받으며 경기를 한 올 시즌이 행복하다. 안치홍은 “올 시즌 홈런 대부분을 안방에서 쳤다. 항상 많은 관중분이 찾아주셔서 힘이 됐다”며 “올 시즌 목표는 우승이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표정은 어디 가나 안 죽으니까 = 26일 홈 최종전을 앞둔 KIA 분위기는 비장했다. 후반기 하락 속에 두산에 공동 1위까지 허용하면서 우승 도전에 비상이 걸린 상황. 김기태 감독은 “홈관중에게 감사하고 열렬한 응원 덕분에 선수들이 잘해왔

다. 72경기 정신 없이 했다. 그렇게 더웠는데도 관중석을 찾아주는 팬들이 대단했다. 타구장에서도 (팬들의 응원 열기가) 마찬가지였다. 보답하는 길은 그라운드에서 잘하는 것이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재미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수단 분위기를 묻는 말에는 “우리 선수들 표정은 어디 가나 기 안 죽고 좋다”며 웃었다.
▲나가서 방망이 치고 싶어요 = 마음은 그라운드에 가 있는 예비 호랑이 한준수다. KIA는 LG와의 홈 최종전이 열린 26일 2018 신인 선수들을 초청했다. 신인 선수들은 부모님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팬들 앞에 첫선을 보였다. 또 부모님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신인 선수들이 시포를 받아 훈훈한 장면도 연출했다. KIA의 1차 지명을 받으며 프로 데뷔를 앞둔 동성호 한준수는 “선배님들 훈련을 하시는 것 보니까 나가서 나도 방망이 치고 싶다”며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가겠다”고 경기장을 찾은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상금 10억 돌파 임박 이정은 2주 연속 우승·시즌 5승 도전

시즌 상금 10억원 돌파를 예약한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햇시스’ 이정은(21)이 2주 연속 우승과 시즌 5승에 도전한다.
이정은은 29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용인 88 컨트리클럽 나라·사랑코스(파 72)에서 열리는 팬텀클래식에 출전한다. 이정은은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 다승 등 4대 개인 타이틀 선두를 달리고 있다.
24일 OK 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션을 제패한 이정은이 팬텀 클래식에서 우승한다면 4대 개인 타이틀 석권에 박차 다갈수 있다.
상금은 2위와 적어도 2억5900만원 차이로 벌어진다. 대상 포인트는 215점 차이로 달아날 수 있다. 메이저대회 2개를 포함해 4개 대회가 더 남지만 사실상 상금왕 대상 2개 타이틀은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된다. 1승 차이로 1위인 다승 부문에서도 2승이라는 여유를 갖게 되고 평균타수 부문에서도 2위의 추격권에서 더 멀어진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정은은 “개인 타이틀 욕심은 잊고 대회 우승을 목표로 뛰겠다. 우승하면 모든 게 따라온다”며 우승에 대한 강한 의욕을 숨

기치 않았다.
이정은은 이 대회에서 시즌 상금 10억 원 돌파가 예상된다. 9억9518만원을 벌어들여 10억원에 481만9000여원을 남긴 이정은은 이 대회에서 29위만 올라도 시즌 상금 10억원을 넘는다. 지금까지 KLPGA 투어에서 단일 시즌에 상금 10억원을 넘긴 선수는 2014년 김효주(22), 작년 박성현(24)과 고진영(22) 등 세 명 뿐이다.
이정은의 2주 연속 우승 가능성은 적지 않다. OK 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션 2라운드에서 KLPGA투어 사상 최소타 기록(12언더파 60타)을 세운 데 이어 최종 라운드에서 한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우승을 차지한 이정은의 경기력은 절정이다.
비거리(12위), 페어웨이 안착률(16위), 그린 적중률(3위), 평균 퍼팅(3위) 등 이렇다 할 약점 없는 고른 기량에 강철 체력과 강한 정신력까지 갖춘 이정은을 제칠 선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상금랭킹 2위 김지현(26)과 대상 포인트 2위 고진영(22)은 이 대회에서 이정은에게 우승을 내준다면 곤란하다고 보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PGA CJ컵 티켓을 잡아라 내일 KPGA 카이도 온리 제주오픈 개막...3명 출전권

PGA 투어 대회 CJ컵 출전 티켓을 놓고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국내파 선수들이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28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크라운 컨트리클럽(파72·7075야드)에서 열리는 카이도 온리 제주오픈(총상금 5억원) 결과에 따라 CJ컵 출전 선수 3명이 가려진다.
이 대회를 끝으로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3명은 오는 10월19일 제주 나인브릿지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CJ컵에 출전할 수 있다.
코리아투어 선수에게 배정된 CJ컵 출전권 5장 가운데 2장은 KPGA선수권대회 우승자 황중근과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김승현에게 돌아갔다.
제네시스 포인트 1~3위에 포진한 이정환, 이형준, 최진호는 이 대회 우승으로 쟁기를 뺏겠다는 복안이다. 이들 셋은 시즌 2승 고지를 놓고 경쟁한다.
하지만 5위 변진재, 7위 이은택, 9위 박은신도 제주오픈에서 우승한다면 CJ

컵 출전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변진재, 이은택, 박은신은 아직 우승이 없어 우승과 CJ컵 출전권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노린다.
지금까지 코리아투어에서 총상금 8억원 이상 특급 대회 우승을 쓸어담은 해외파 선수들이 한 명도 출전하지 않아 이들 국내파 선수들의 우승 경쟁은 더 뜨겁다.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CJ컵 출전을 확정지은 제네시스 포인트 4위 김승현과 제네시스 포인트 8위 장이근은 각각 일본프로골프투어와 아시아프로골프투어 일정을 떠났다.
올해 국내에서 한 번씩 우승한 강경남, 이상희도 일본프로골프투어 출전하느라 자리를 비웠다.
이 대회에서 우승해도 CJ컵 출전권을 따지 못하지만, 김성용, 맹동섭, 김우현, 김홍택, 서형석 등 1승씩 신고한 국내파 챔피언은 시즌 2승을 노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입장료가 없다. /연합뉴스



태국에서 열린 2018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전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여자배구대표팀이 인천공항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3개월간 4개의 국제대회를 마감한 선수들은 이제 본격적인 프로리그 준비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한국 여배구, 국제대회 성적 나쁘지 않았다” 세계선수권 1위 주역 김연경 등 입국

여름 배구의 한복판에서 한국 여자대표팀의 주포로 공격을 이끈 ‘배구 여제’ 김연경(29·중국 상하이)은 “내용상 부족한 부문은 있었으나 올해 국제대회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총평했다.
지난 24일 태국 나콘팜에서 끝난 2018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에서 B조 1위를 차지한 한국 대표팀은 26일 오전 귀국했다. 7월부터 그랑프리 국제여자배구, 아시아선수권, 그랜드챔피언십을 거쳐 세계선수권대회 예선전으로 이어진 여자대표팀의 올해 국제대회 일정도 모두 끝났다.
김연경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대회로 여긴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을 잘 마무리해서 다

행이고 특히 이번에 아시아선수권 준결승에서 패한 태국에 설욕해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표팀은 이번 예선전에서 북한, 베트남, 이란, 태국과 풀리그를 치러 단 한 세트도 빼앗기지 않고 4전 전승으로 거푸 B조 1위로 세계선수권대회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김연경은 “우리 팀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올해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흥성된 대표팀 감독님의 스타일을 파악해 어떻게 경기를 해야겠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동료와의 호흡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중국 상하이와 1년간 계약한 김연경은 10월 3일 새 시즌 준비차 상하이로 떠난다. /연합뉴스